

SK텔레콤, 제 39기 정기 주주총회 개최

“AI 컴퍼니로 도약하는 한해 만들어 갈 것”

**- 사외이사로 AI 전문가 선임…AI 역량 강화한 이사회가 AI 컴퍼니 도약 지원**

**- 유영상 사장, 주총 현장서 AI 컴퍼니 도약 위한 3대 전략 제시**

**· ▲핵심 사업 AI 혁신 ▲AI 서비스로 고객 관계 강화 ▲산업 전반 AI 접목**

**- AI 접목한 ESG 활동 성과 공유…본업 연계해 환경, 사회에 선한 영향력 확대**

|  |
| --- |
| **엠바고 : 배포 즉시 활용 부탁드립니다.** |

**[2023. 3. 28]**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유영상, www.sktelecom.com)이 28일 서울 을지로 본사 T타워에서 제 39기 주주총회를 열고 ▲2022년 재무제표 승인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등의 안건을 승인했다.

2022년 연결 재무제표는 전년 대비 각각 3.3%, 16.2% 성장한 연간 매출 17조 3,050억원, 영업이익 1조 6,121억원으로 승인됐다. 주당 배당금은 연간 3,320원으로 확정됐다. 분할 전인 2020년 대비 66% 상향된 수준이다.

SKT는 AI 전문가 오혜연 카이스트 교수를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신규 선임하고 김준모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부교수를 사외이사로 재선임하며 이사회에도 AI 역량을 강화해 AI 컴퍼니 도약에 힘을 싣는다.

신임 오혜연 사외이사는 자연어 처리 기반 AI 전문가로 현재 KAIST 전산학부 교수이자 인공지능연구원 원장 등을 겸하고 있으며 학계, 정부, 기업 등과 활발한 연구 및 프로젝트를 수행한 풍부한 경험에서 나오는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SKT는 오혜연 사외이사가 향후 AI 기술 방향성과 인공지능 윤리 문제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조언 등으로 SKT가 AI 컴퍼니로 성장하는데 기여함은 물론 이사회의 다양성과 전문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준모 사외이사는 딥러닝 알고리즘 기반 컴퓨터 비전 및 신호처리 분야에 특화된 AI전문가다. SKT는 김준모 사외이사가 SKT가 추진하는 AI와 디지털 전환 사업에 대한 조언과 AI 기반 비즈니스 전략 등에 대한 전문가적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용학 연세대학교 명예 교수도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재선임됐다. 김용학 사외이사는 지난 3년간 이사회 의장으로 재임하며 사회학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거버넌스 선진화와 인적분할, ESG 분야 등 기업가치 제고에 필요한 자문을 제공했다. SKT는 김용학 사외이사가 재선임 후에도 SKT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가는데 지속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KT는 경영진과 주주의 이해 일치를 바탕으로 경영진의 책임경영 강화 및 중장기 관점에서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경영진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안건도 승인했다.

이번 주총에서 유영상 SKT 사장은 2022년도의 성과와 올해 AI 컴퍼니로의 도약을 본격화하겠다는 경영 전략에 대해 주주들에게 설명했다.

유영상 SKT 사장은 “2022년은 SKT 2.0 출범과 함께 제시한 5대 사업군을 성장궤도에 안착시키고 AI 컴퍼니 진화를 선제적으로 준비한 한 해”였다며 “올해는 AI 컴퍼니로의 도약을 본격화 하겠다”고 밝혔다.

**■ 유영상 사장, 주총 현장서 AI 컴퍼니 도약 위한 3대 핵심 전략 축 제시**

유영상 사장은 SKT 2.0 시대 출범과 함께 제시해 성장 궤도에 안착한 ▲유무선 통신 ▲미디어 ▲Enterprise ▲AIVERSE ▲Connected Intelligence 등 5대 사업군의 견고한 성장을 지속함과 동시에 AI 컴퍼니로의 본격적인 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Core Biz.의 AI 혁신 ▲AI 서비스로 고객 관계 강화 ▲산업 전반으로 AI를 확산하는 AIX 등 3대 핵심 전략 축을 제시했다.

먼저 SKT는 AI 기술을 통해 유무선통신과 미디어, 구독 사업 등 기존 핵심 서비스(Core Biz.)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SKT는 고객이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 과정에 AI를 적용해 초개인화 기반 차별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고객의 편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미디어는 B tv를 다양한 OTT를 한 데 모은 통합 포털로 진화시키고 콘텐츠와 커머스 등에 AI를 접목할 예정이다.

지난해 가입자와 총 상품 판매액 등 핵심 지표가 2배 이상 성장한 'T우주'도 글로벌 톱 브랜드 제휴와 데이터 기반 초개인화 마케팅을 확대하는 등 대한민국 대표 AI 구독 커머스 플랫폼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영상 사장은 에이닷을 필두로 한 AI 서비스로 고객과 기술의 거리를 좁히며 고객과의 관계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최초 한국어 거대언어모델 기반의 B2C 서비스 에이닷은 개인화된 캐릭터, 대화, 서비스 연계를 중심으로 고객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며 시장에 안착했다. 올해는 기억과 이미지 기반의 대화 기능을 강화하고 제휴 캐릭터와 연계 콘텐츠 확대를 통해 서비스를 고도화해 이용자 기반을 확대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중 SKT의 메타버스 서비스 이프랜드도 대대적인 업데이트를 진행 할 예정이다. 나만의 3D 공간을 꾸미고 삶을 기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추가해 메타버스 세계를 확장한다. 웹 3.0 인프라를 기반으로 경제 시스템 도입도 본격화 한다. 글로벌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세계 시장 공략에도 박차를 가한다.

유영상 사장은 SKT의 AI 혁신을 산업 전반에 적용해 시대의 대전환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SKT의 AI 기술은 이미 물류, 의료, 보안 등 다양한 인접 사업영역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다. 지난 2월 MWC23 현장에서는 글로벌 AI 시장 공략을 목표로 한국의 대표 AI 기업들과 AI 얼라이언스를 결성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파트너들과 협력을 확대해 산업 전반의 AI 혁신을 선도할 계획이다.

UAM은 올해 정부 실증 사업 시작과 함께 상용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며 AI 반도체 사피온도 차세대 제품 X330을 출시한다. 이 외에도 로봇, AI 광고 플랫폼, AI 고객센터 등 산업 전반에 AI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 AI 접목한 ESG 활동 성과 공유…본업 연계해 환경, 사회에 선한 영향력 확대**

유영상 사장은 지난 해 주주총회에서 발표한 본업과 ESG를 연계해 선한 영향력을 확대해 간다는 'ESG 2.0'에 대한 성과도 함께 밝혔다.

SKT는 그린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국내 통신사 중 최초이자 유일하게 SBTi(Science Based Target initiative)\*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검증을 통과했으며, 15,000여개의 회사 중 296개만 선정된1 CDP A list\*\*를 획득했다.

*\* WWF, CDP, UNGC 공동의 계획으로 1.5℃ 감축목표 달성 방안을 과학적으로 수립하고 실천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힘*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적인 비영리 기구 CDP에서 매년 평가를 통해 최고 등급인 A를 받은 기업*

SKT는 AI를 활용한 ESG 활동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일회용 플라스틱 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피해빗'은 '21년 7월부터 현재까지 서울, 제주 등에서 745만개의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을 줄였다. 또한 SKT의 AI 기술은 독거노인 5만 가구를 돌보고 있으며 450명 이상을 응급 구조하는데 이바지했고, 작년 한 해에만 400만 건 이상의 스미싱을 차단해 피해를 예방했다.

SKT는 2022년 전세계 통신사 중 6개만 선정된 DJSI World index에 편입돼 국내 기업으로는 최장 기간인 14년 편입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MSCI ESG 평가 AA, KCGS 종합 평가 A 등 외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그 노력을 인정받았다.

|  |
| --- |
| **※ 사진설명**  SK텔레콤이 28일 서울 을지로 본사 T타워에서 제 39기 주주총회를 열고 ▲2022년 재무제표 승인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등의 안건을 승인했다. 사진은 주주총회에 참석한 SKT 유영상 사장의 모습. |

**▶ 관련문의 : SK텔레콤 PR실 전략PR팀 윤태구 매니저(02-6100-3816)**

텍스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끝>**